

## 독과점으로 질주하는 한국영화계, 브레이크는 작동 중?

전 찬 일 · 영화평론가

### 스타연기자들의 살인적 몸값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대두된 양극화 현상은 영화에서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아니, ‘빈익빈 부익부’ 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그 현상은 영화 분야에서 특히 더 심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영화 산업이 워낙(양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터라, 그 호황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 또한 여간 질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제작 - 배급 - 상영 - 수용/소비에 이르는 영화 산업의 전 단계에 걸쳐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떠오르는 영화계 양극화의 우선적 예는 해가 거듭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스타연기자들의 몸값이다. 영화 규모에 상관없이 적잖은 주연급 스타들의 몸값이 수억

그렇다고 이 수억이 무조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40억 원 전후의 극산 영화 평균 제작비나 기

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를 받기도 하는 다른 비스타급 출연자들의 몸값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이 빠른 과한 액수라는 지적 내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따름이다.

을 호가하곤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다. 수억 을 안겨 주더라도 캐스팅만 되면 더 비쌀 게 없겠다는 제작관계자들의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추세라면 스타 한 명을 모시기 위해 올려 겨자 먹기로 10억 원 이상을 줘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지도 모를 일이다. 설상가상 일부 스타의 경우엔 일정 흥행 스코어를 넘으면 출연료 외에 로열티를 지급받거나, 해당 스타가 소속된 회사가 공동 제작자로 버젓이 등재되기도 한다. 한편으론 스타 파워를 빌미로 한 가진 자의 횡포일 수도 있으나, 스타를 향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워낙 높은 탓이다.

주지하다시피 연 평균 80편 가량 제작되는 현 상황에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곳은 수백 개에 달하며, 심지어 1천 개가 넘는다고도 한다. 그들 모두가 한 편이나마 제작해내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하지만 투자사에서 선호하는 스타들은 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한 예로, 2005년 박스 오피스 2위작인 「말아톤」 서울 기준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7부분의 위기 부분의 영광2에 이어 3위였다. 이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에 의해 투자 받기 전, 그 술한 투자거절의 주 이유가 조승우가 주연이기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조승우는 적잖은 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셈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게다가 그 스타들 중 적잖은 수가 연 제작 편수 중 상당수를 만들어내는, 일부 힘 있는 메이저 제작사들의 작품들 쪽으로 기울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니 힘 없는 신생·영세 제작사들의 경우, 투자의 최우선 조건인 스타 캐스팅을 위해서라면 시쳇말로 사활을 걸지 않을 도리가 없다. 스타/매니지먼트사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라도 말이다.

「태풍」 포스터



당장 떠오르는 영화계 양극화의 우선적 예는 해가 거듭되면서 기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스타연기자들의 몸값이다. 스타 한 명을 모시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0억 원 이상을 줘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지도 모를 일이다. 설상가상 일부 스타의 경우엔 일정 흥행 스코어를 넘으면 출연료 외에 로열티를 지급받거나, 해당 스타가 소속된 회사가 공동 제작자로 버젓이 등재되기도 한다.

이런 고액의 몸값 흥정은, 그러나 일부 잘 나가는 스타급 연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쯤은 굳이 강변할 필요가 없을 터. 과거에 비해 상황이 한결 호전되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작금의 한국영화 호황으로부터 소외된 연기자들이 수두룩하리라는 것이다. 몸값 흥정은 커녕 출연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감지덕지일 연기자들이 즐비하리라는 것이다. 영화의 얼굴들인 연기자들이 그럴진대, 여타 대다수 스타들이야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 배급·상영을 둘러싼 지리멸렬한 힘겨루기

스타 연기자들의 몸값을 둘러싼 양극화보다 개인적으로 한층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배급·상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를 계기로 이른바 ‘광역 개봉’ (Wide Release)이 대세가 되면서, 흥행성 높은 한 편의 영화가 적게는 전국 스크린 수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20개, 2001년 818개, 2002년 977개, 2003년 1,132개, 2004년 1,451개, 2005년 1,634개다. 의 5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까지 차지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따라서 어지간한 화제작들은 보통 3~400개 사이, 보다 센 화제작들은 400개 대, 「태극기 휘날리며」나 「태풍」 같은 초대형 화제작들

2005년 <칸 영화제> 황금카메라상 및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등을 거머쥔 미란다 줄라이의 사려 깊은 관계의 드라마 「미 앤 유 앤 에브리원」은 하이퍼텍 나다,CGV 강변 인디싱영관에서 상영되었다.



은 5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장악하곤 한다. 그 또한 언제 어느 영화가 600개, 나아가 7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점령할지 모를 일이다.

그에 반해, 수십 개는 고사하고 전국 10개도 스크린을 잡지 못하는, 아니 서울에서 겨우 서너 개 관, 극심한 경우는 단관 상영에 만족해야 하는 영화들도 적잖은 게, 호황 속 우리 영화계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도 대개는 광화문 시네큐브나 동숭동 하이퍼텍 나다, 종로 시네코아 등 예술성 짙은 영화들을 주로 소개하는 극소수 영화관에서 말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 아프건만, 어떤 영화는 그보다 조금 더 센, 다른 영화들과 교차 상영되는, 가슴시리도록 초라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기까지 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개봉 첫 주 무려 166만여 명이 동원하는 기염을 토하며 화려한 선을 보인 「투사부일체」가 개봉 2주차를 맞이한 지난 1월 25일, 전국 4백 수 십 개 스크린을 차지한 채 설 연휴 흥행 돌입을 이었다. 한편, 개봉 5주차인데도 600만 선을 넘어 700만 고지를 향해 질주했던 「왕의 남자」는 3백 수 십 개의 스크린을 고수하며, 「투사부일체」와의 한판 승부를 벌였다. 반면, 2005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빛나는, 벨기에 다르넨 형제의 수작 「더 차일

드」는 씨네큐브 단 한 개관에서 '쓸쓸히' 상영되었다. 지난 2004년 바로 그 영화제에서 「올드 보이」가 황금종려상도 아닌, 그보다 한 단계 아래 격인 심사위원대상을 거머쥐었다고 그렇게들 난리(?)쳤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2005년 〈칸 영화제〉 황금카메라상 및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거머쥔 미란다 줄라이의 사려 깊은 관계의 드라마 「미 앤 유 앤 에브리원」은 2003년 선댄스 관객상·각본상·연기상 등을 휩쓴, 「미 앤 유 앤 에브리원」 못지않게 감동적인 관계의 드라마 「스테이션 에이전트」와 나란히 하이퍼텍 나다에서 역시 외롭게 상영된다. 참, 「미 앤 유 앤 에브리원」은 CGV 강변 인디상 영관에서도 상영되었다니 그나마 조금은 덜 외롭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에 비하면, 일본 영화 「매종 드 히미코」는 시네코이를 비롯해 명동 CQN, CGV 강변과 상암, (부산) 서면의 인디상영관에 이르는, 전국 다섯 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었으니 무척 행복한 편이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국내에서도 잔잔한 반응을 일으켰던 이누도 잇신 감독의, 게이 공동체 내지 연대에 관한, 나아가 그 공동체를 통해 인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요청하고 역설하는 감동의 휴먼 드라마이다.

문득 이런 의문이 밀려든다. 이보다 더 극심한 양극화가 어디 또 존재할까. 아마, 없을 거다. 오죽하면 '배급 전쟁'이라 하겠는가. 최근 「홀리데이」 상영을 둘러싸고 CJ 엔터테인먼트와 롯데 시네마 사이의 세 싸움으로 인해 빚어졌던 한바탕 해프닝은 그야말로 그 전쟁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아 그렇지, 그런 사례는 비밀비재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테고…….

영화계 양극화는 영화 산업 권력과 거의 무관한 평론계에서조차도 발견된다.

소위 잘 나가는 평론가들과 그렇지 않은 평론가들 사이의 차이는 상기 감독의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게 현실이다. 유감스러운 건, 해마다 적잖은 신예들이 배출되는 감독들의 세계와 달리 국내 평론계에서는 새로운 수혈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만하면 가히 '평론권력'이라 한들 과언이 아닐 터.

#### 스타감독, 평론 권력 그리고 한국영화 맹신현상

상기 사례 외에도 영화계 양극화는 그야말로 수도룩하다. 그 가운데 아주 미묘한 것은 감독들을 둘러싸고 형성된 양극화다. 가령 박찬욱, 김지운, 곽재용 등 소수 스타 감독들에겐 연출 의뢰가 줄줄이 밀려드는 반면, 상당수 감독들에겐 연출 기회를 잡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대개는 흥행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투자사와 제작사들이 그 감독들을 다루기 수월치 않다는 '낙인' 등으로 인해서다. 노장은커녕 영화 산업의 중추 격인 중견 감독들이

●●● 영화

부족해지는 결정적 이유다.

그것은 곧 소모적 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양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재능 있는 신인의 등장이 반카우면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건 무엇보다 그 때문이다.

영화계 양극화는 심지어 영화 산업 권력과 거의 무관한 평론계에서조차도 발견된다. 고정 지면 원고건 인터뷰건 이러저런 심사건, 소위 잘 나가는 평론기들과 그렇지 않은 평론기들 사이의 차이는 상기 감독의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현실이다. 유감스러운 건, 해마다 적잖은 신예들이 배출되는 감독들의 세계와 달리 국내 평론계에서는 새로운 수혈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으레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최근 그 양상에 다소 변화가 일기 시작했지만, 어떤 평론가는 대한민국 대표 평론가로서 지난 십수년 간 부동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모 영화전문주간지에서 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다른 필자의 원고료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높다고 한다. 지면 배정에선 말할 것 없고, 다른 필자는 한두 쪽도 할애 받기 힘들는데 반해 그는 대여섯 쪽은 물론이고 때론 열 쪽 이상을 할애받기도 한다. 이만하면 가히 '평론권력'이라 한들 과언이 아닐 터.



「말아톤」 포스터

영화계의 제반 양극화를 다소나마 감소, 저지시킬 수 있는 보다 유의미한 변화

내지 개선을 일궈내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당장 영화 산업을 말로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변화는 맹목적으로 스타 캐스팅을 요구하는 투자사들의 관행이 제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 관행만 다소 변한다 해도 스타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그 결과 스타들의 몸값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닌 그것이 시장 논리인 것이다.

이렇듯 영화계 양극화는 두 손기락으로 다 세기 힘들 정도다. 최근 가장 눈길이 가는 양극화는 국내 언론 매체 및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다분히 맹목적이며 일방적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한국 영화를 향한 선호와 외국영화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과 무시다. 제 아무리 대단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도 우리나라에만 오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기 십상이기에 하는 말이다. 단적인 예가 지난 해 박스 오피스 종합 톱 10에서 무려 7편이 국산 영화였는데,

그것도 상위 4위까지가 죄다 우리 영화였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그러나 보다 섬세한 관찰, 묘사가 요청되는 만큼 이쯤에서 넘어가기로 한다.

#### 공생, 공존 위한 '미션 임파서블'을

그렇다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영화계의 제반 양극화를 다소나마 감소, 저지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게 필자의 솔직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각론에서 아주 미미하나마 변화의 움직임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보다 유의미한 변화 내지 개선을 일궈내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당장 영화 산업을 말로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변화는 맹목적으로 스타 캐스팅을 요구하는 투자사들의 관행이 제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의 남자」, 「웰컴 투 동막골」, 「말아톤」, 「미파도」 등 적잖은 실례에서 입증되었듯, 한국 관객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전통적으로 스타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2005년도 영화관객 성향조사 결과보고서(요약)'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영화 관람 주요 동기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36.5%), '타인이 권유해서' (19.5%), '기분전환/시간 보내기' (13.4%) 등이며, 관람 영화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영화의 스토리', '주변사람들의 영화평', '영화관 위치' 등의 순서로 답했다는 것. 그 중요성이 없는 건 결코 아니겠으나 스타 캐스팅이 영화 선택의 우선적 요인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스타 캐스팅에 심하다 할 만큼 집착한다. 얼마나 지독한 모순인가. 당장 이 관행만 다소 변한다 해도 한국영

한국영화 산업은 언제 어떻게 총체적 저항에 직면할지 모른다. 과거 할리우드가 그랬던 것처럼, 독과점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국영화계가 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강제 재편되는 것이 결코 '미션 임파서블' 만은 아닌 것이다.

화계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스타 의존도가 그만큼 감소함에 따라, 스타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그 결과 스타들의 몸값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름 아닌 그것이 시장 논리인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흥행 제2의, 제3의 「왕의 남자」들을 우리는 보다 자주 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객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객으로서 볼 권리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본연의 목적이 관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 관람하게끔 하는 것인 만큼 그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 요구는 물론 보다 다양한 영화를 찾아 관람하는 실천과 결부, 병행되어야 한다. 텅 빈 상영관인 채로 멀티플렉스 측에 다양한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인 탓이다. 물론 배급·상영하는 측이 먼저 나서 관객들의 볼 권리를 조금이나마 더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금상첨화일 터이다. 씨네큐브, 하이퍼택 나다, 씨네코아, CGV 일부 인디상영관 등의 유의미한 시도처럼 말이다.

그것이 공존, 공생의 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영화 산업은 언제 어떻게 총체적 저항에 직면할지 모른다. 과거 할리우드가 그랬던 것처럼, 독과점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국영화계가 법의 적극적 개입으로 강제 재편되는 것이 결코 '미션 임파서블' 만은 아닌 것이다.

이 외에도 제언들은 얼마든지 더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상기 서너 가지 제언만으로 만족하련다. 사실 그 제언만도 현실화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까 말이다. ...